

##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 필기시험 기출문제 전체언어공통(A→B)

리더는 우두머리가 아닌 중심인물이다. 요즘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한국의 갑질 사례가 세계 언론에 소개될 정도다. 유독 한국 사회에서 갑질이 성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각국의 문화를 수평문화와 수직문화로 구분한다. 수평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협의에 기반한 의사결정방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수직문화의 나라에서는 의사결정이 상사에 의해 신속하게 이뤄진다. 상명하복 문화다. 한국은 수직문화에 속한다. 농경사회에서 유래한 전통이다.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면 구성원 전원이 따르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문제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는 이미 대등한 개인이 주체가 된 다원적 수평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리더는 서열 상 위에 있는 우두머리가 아니다. 조직의 중심에 있는 중심인물이다. 호령하고 지시하는 우두머리 대신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소통을 진작시키는 중심인물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한국 사회에 갑질이 많은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과거의 권위주의적 수직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기업이다. 첨예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익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생존을 위해 문화를 바꾸고 있다. 연공서열제가 타파되고 성과급 제도가 도입됐다. 학력 대신 능력 위주의 승진 제도가 채택됐다. 계층과 직급을 기반으로 하는 수직조직이 협업 위주의 수평조직으로 개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고속 성장한 배경으로 수평문화를 손꼽는다. 구글에서는 말단 직원도 CEO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전 직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침묵은 조직 발전을 저해한다. 2003 년 컬럼비아 우주 왕복선이 지구 귀환 중 공중 폭발해 승무원 7 명 전원이 사망했다. 원인은 대기권 재진입 시 왼쪽 날개에 생긴 구멍에 고온의 공기가 유입된 것이었다. 한 기술자가 이륙 전 날개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너무 낮은 직급이어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관리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침묵문화는 조직 발전을 저해한다. 비판을 듣기 싫어하고 반대의견이 억압당하는 갑질사회에서는 책임의식이 실종된다.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도 자랄 수 없다. 누구든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 필기시험 기출문제 전체언어공통(A→B)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 패션에서 시작된 이 유행은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가 지금은 뚜렷하게 문화의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 문화는 용도 폐기된 줄 알았던 과거의 물건을 되살려내기도 한다. CD 가 나오면서 모두 내다 버렸던 LP 레코드 가운데 인기 있는 것은 처음 나왔을 때보다 몇 배의 돈을 주어도 구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굳이 큰돈을 주고 이 낡은 매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새것을 숭배하는 사회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새것 숭배는 모든 물건을 일회용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물건은 구매하는 순간 낡은 것이 되어 버리므로 빨리 새것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물건이 수명의 백분의 일도 채우지 못한 채 쓰레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 따라서 낡은 것을 되살리는 일은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건강한 지구를 만들자는 대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오래전 아버지의 유품 가운데 전기면도기를 발견했는데 마침 면도기가 필요했던 터라 쓰기로 했다. 낡고 오래되긴 했어도 신기하게 잘 돌아갔는데 언젠가부터 충전이 말썽을 부렸다.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필자를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교체 가능한 부품을 주문했다. 놀랍게도 소모품은 물론 충전 배터리까지 다 구할 수 있었다. 결국 간단한 수술 끝에 면도기는 완전한 상태로 되돌아갔다. 작지만 개인적으로 뜻깊은 일이었다.

작고 싼 전기면도기는 은퇴해도 이렇게 장수를 누릴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아파트처럼 크고 비싼 물건에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인간 존중과 사물 존중이 서로 다르지 않을 텐데, 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심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

모든 것은 고장 나기 마련이다. 안경다리도 부러지고 사회 제도도 유효 기간이 끝난다. 답은 두 가지다. 고치거나 교체하거나. 고치는 행위의 핵심은 사물과 시간에 대한 존중이다. “뭐하러 고쳐, 그냥 사지”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잘 고쳐 볼까”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에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것인지도 모른다.

##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 필기시험 기출문제 전체언어공통(A→B)

MZ 이란 단어는 언론을 달구는 세대 담론의 상징이 된 듯하다. 이는 경제 상황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밀레니얼과 Z 세대, 이들이 업계를 막론하고 소비시장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MZ 세대는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절대 빈곤을 모르고 귀하게 자라 자기중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기적'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들이 소비시장에서 발휘하는 선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세대 담론이 시작된 것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 사회의 변화를 부르짖었던 386 세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대 태어나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한 당시의 30대는 한창 보급되던 고성능 컴퓨터의 CPU에 빗대어 표현될 만큼 시대를 앞서가는 신세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사회문제에 뜨겁게 들끓고 힘겹게 투쟁하던 젊은 피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MZ 세대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MZ 세대는 연대 의식이나 뜨거움의 온도에서 과거 세대와 다르다. 그러나 기술의 격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확고한 주관과 빠른 실천에 능하며 또 그들은 나름대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비용을 더 지불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미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퍼 나르는 부지런함으로 무장해 있다.

이들은 거대 담론에는 큰 관심이 없는 대신 일상생활 속에 소소한 습관으로 자리한 윤리적 소비를 곳곳에 조용히 퍼뜨리고 있다. 사실 이런 소비는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환경 문제는 생존을 좌우하는 절박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MZ 세대는 이 문제를 시끄럽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행위로 해결하려 한다. 이는 이들의 일상 중시와 연결되어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의 범람으로 현실과 괴리를 겪으면서 오히려 일상이 더욱더 권태로워지는 것을 경험한 현대인은 평이한 일상적 행동에서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 그 선두 주자인 MZ 세대는 비현실적인 꿈의 실현이나 이상적이고 완벽한 삶보다는 자신이 늘 겪는 작지만 소중한 경험에 집중하며 소신 있는 삶을 꾸려가고자 한다. 이들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을 자의식 과잉이라고 촌스럽게 여기면서 꾸미지 않아도 멋진 일상을 갈망한다.